

인 사 말

겨우내 움추렸던 몸이 향기로운 지천의 꽃들과 초록으로 돌아나는 생명의 기운으로 마음까지 맑아집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대승의 꽃이라 불리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음악으로 만나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에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4월 <연등회>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불자로 한정된 문화가 아니라, 불교문화가 민족문화라는 형태로 전승되어 이어져온 소중한 전통문화이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임을 의미합니다.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함께 갖추게 되었습니다.

불기2556년 올해의 봉축 표어는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보살 정신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음악회 ‘보현행원송’ 공연은 보살행의 실천이라는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현행원송’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10가지 발원을 담고 있습니다. 광덕스님 작사와 박범훈님 작곡으로, 국악과 합창 그리고 독창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성곡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말할 수 있는 보살행의 실천이라는 가르침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공연을 만들어 주신 박범훈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공연은 봉축위원회, 명법사, 국립극장의 공동주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공연이 국립극장에서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행사는 국립극장이 주최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게 됨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명법사 주지스님과

국립극장장님, 그리고 오늘 공연을 위해 진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뜻 깊은 공연에 함께 자리해 주신 청중들께도 감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공연의 음악처럼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퍼져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발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4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